

여호야긴과 에월프로닥

— 열왕기하 25:27-30의 정경적 지위와 신학적 의의 —

김창주*

1. 오경인가 구경인가

마르틴 노트(Martin Noth)가 1943년 제안한 ‘신명기적 역사에 관한 이론’(Theorie vo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은 구약성서 연구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의 하나다.¹⁾ 즉 그가 주장한 ‘신명기적 역사’란 신명기가 앞에서 이끌고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 서술에 신명기 신학이 반영되었다는 학설이다. 이와 같은 노트의 관점은 신명기와 전기 예언서 사이의 문학적 통일성 뿐 아니라 신학적 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명기의 서론적인 안내(1:1-4:43; 4:44 ff.)가 왜 필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른 바 ‘신명기적 역사’ 이론이 지불한 대가는 크다. 우선 유대교의 전통적인 견해이던 모세 오경의 틀을 단번에 무너뜨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를 가리키는 ‘사경’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진입이라는 서사적 구도마저 흔들여 놓았다. 한편으로 노트의 연구는 동시대의 폰라트(Gerhard von Rad)가 제창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던 육경신학,²⁾ 곧 창세기-여호수아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는 ‘육경이론’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약 학계의 연구 열기를 한층 더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오경에 관한 논의는 여호수아까지 육경, 사사기까지 칠경, 사무엘까지 팔경, 그리고 열왕기까지 구경(Enneateuch) 등으로 신학적 이론이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qimchangjoo@naver.com.

1) Martin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Halle: Niemeyer, 1943, 1957, 1967); Martin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 Sup 15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81, 1991).

2) Gerhard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1966).

확대 세분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1876년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문서가설 이후 오경은 여러 자료의 편집이라는 분석적 평가로 인하여 그 단일성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열왕기까지를 일관성이 있는 문학 단위로 간주하려는 노트의 신명기적 역사 이론은 오히려 통합적 관점을 제공하는 신선한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뢰셔(Gustav Hölscher)는 구경을 처음부터 한 권으로 저작된 통일성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전기 예언서를 독립적으로 보면 그 범위는 가나안 입주부터 바빌론 포로기, 남 왕국 유다의 멸망까지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오경과 연결 없이 독자적인 자리를 상정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 오경 수집과 윤곽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갔으며 이후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역사의 형성도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경의 형성에 창세기-민수기의 사경과 신명기-열왕기의 신명기적 역사의 두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인가? 최근에 에르하드 블룸(Erhard Blum)은 그의 논문 “Pentateuch-Hexateuch-Enneateuch?”에서 이스라엘 역사 서술이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이음새 없이 계속되는데 왜 여호수아에서 끊으려고 하는지 묻고 구경은 큰 틀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점유와 상실을 이중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⁴⁾ 또한 구경의 서사에는 연속되는 형식뿐 아니라 시간, 공간, 인물, 사건 등에 관한 일관된 관점이 있다고 본다. 한편 크라츠(Reinhard G. Kratz)는 출애굽 서사를 중심으로 육경의 형태가 독립적으로 있었고 그 줄거리 위에 계약법, 신명기 법전, 그리고 십계명이 차례로 덧붙여졌으며 점차 구경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신명기의 신학이 반영된 편집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⁵⁾ 소위 역사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 78, 80, 106편은 구경의 윤곽과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경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구경의 실체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었다고 본다.⁶⁾

3) Gustav Hölscher, *Geschichtsschreib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m Jahvisten und Elohisten*, vol. 50 (Lund: CWK Gleerup, 1952) 7-8.

4) Erhard Blum, “Pentateuch-Hexateuch-Enneateuch? Or: How Can One Recognize a Literary Work in the Hebrew Bible?”, Thomas B. Dozeman, Thomas Römer, Konrad Schmid, eds., *Pentateuch,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44.

5) Reinhard G. Kratz, *The Composition of the Narrat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London: T&T Clark, 2005), 216-221, 306-307, 320-321;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3 (2008), 67-86.

6) 한편 뢰머(Thomas Römer)는 구경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Thomas Römer, “How Many Books (teuchs): Pentateuch, Hexateuch, Deuteronomistic History, or Enneateuch?”, *Pentateuch*,

이 논문은 구경의 편집 과정에서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후기처럼 언급된 여호야긴 단화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열왕기하 25장 27-30절의 주석적 연구가 요청되며 동시에 여호야긴 사면에 함축된 신학적 의미와 함께 정경적 지위를 차례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열왕기하 25장 27-30절의 분석과 역사 이해

구약성서의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는 각 책이 날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기부터는 앞 책과 연결해주는 해설문이 짝막하게 들어 있다.

²⁷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왕 에 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²⁸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²⁹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³⁰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개역개정』

위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31-34절에도 거의 똑같이 소개되었다. 두 본문과 번역의 비교 및 신명기적 편집에 관한 연구는 페르손(Raymond F. Person)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⁷⁾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위의 인용문은 기원전 562-560년 사이에 에월므로닥 치하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심정을 가진 여호야긴의 수행원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⁸⁾ 이 단원에서는 본문의 이해를 위해 주석에 중점을 두어 여호야긴의 타임 라인을 추적한다. 여호야긴과 에월므로닥은 이 단락의 주요 인물이지만 다음 장에서 따로 소상하게 다루게 된다.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42. 시편 95편은 오경, 시편 136편은 사경을 암시한다.

7) Raymond F. Person, "II Kings 24,18-25,30 and Jeremiah 52: A Text-Critical Case Study i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5:2 (1993), 174-205.

8) Serge Frolov, "Evil-Merodach and the Deuteronomist: The Sociohistorical Setting of Dtr in the Light of 2 Kgs 25, 27-30", *Biblica* 88:2 (2007), 183.

“삼십칠 년”(27절)

다음 쪽의 타임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원전 59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온 지 삼십칠 년이니 560년이다. 이 숫자는 느부갓네살의 철권정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며 동시에 암시다.

“즉위한 원년 십이월 그 달 이십칠일”(27절)

이 날은 예레미야의 “12월 25일”과 차이가 있고, 칠십인역은 “24일”(τετράδι)로 번역하였지만 아달(Adar)월은 동일하다. 따라서 그 해와 달은 일치한 반면 날짜에 대해서는 전승이 다르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에월프로닥은 니산월에 시작되는 새해맞이 일환으로 마지막 달(month) 아달월의 아키투(Akitu) 축제에서 죄수를 사면하는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들게 하고”(27절)

여호야긴의 석방과 사면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며 상징적인 장면이다. 구약에서 ‘머리를 들게 하다’는 구절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마커스(David Marcus)는 이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에서부터 상징적인 활용까지 여러 각도로 풀이한다. 1) 문자적으로 ‘고개를 들다’(대상 10:9), 2) 전문적인 술어로 ‘인구를 조사하다’(민 1:2; 4:2; 31:26), 3) 은유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다, 행복해하다’(삿 8:28; 시 24:7, 9; 슥 1:21; 욥 10:15), 4) 마지막으로 우리의 논의에 가장 필요한 해석으로 ‘놓아주다, 사면하다’는 뜻이다(창 40:13, 19, 20).⁹⁾ 한편 스페이저(Ephraim A. Speiser)는 고대 아카드어의 용례를 통하여 ‘מָשָׂא רֹאשׁ’(머리를 들다)를 사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삼중적 의미를 밝혀낸 바 있다. 즉 ‘발탁하다, 참수하다, 사면하다’ 등으로 해석한다면 여호야긴의 상황에도 상당히 들어맞는다.¹⁰⁾

“그에게 선한 말을 하고”(יִדְבֹּר אֵתוּ טֹבוֹת: 28절)

‘דָּבַר טֹבוֹת’은 계약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어 ‘토브’가 다양한 뜻으로 읽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률적 용어(렘 12:6)나 계약적인 관계

9) David Marcus, “‘Lifting up the Head’: On the Trail of a Word Play in Genesis 40”, *Prooftexts* 10:1 (1990), 21.

10) Ephraim A. Speiser, *Genesi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5), 308; Christopher T. Begg, “The Significance of Jehoiachin’s Release: A New Propos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 (1986), 52; David Marcus, “‘Lifting up the Head’: On the Trail of a Word Play in Genesis 40”, 21.

를 암시하기도 한다(삼상 25:30; 삼하 7:28; 왕하 12:7).¹¹⁾ 레벤슨(Jon D. Levenson)은 본문을 ‘선하게 말하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당시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독법이 된다고 보고, 근동의 여러 문서에서 유사한 실례를 제시한다. 즉 그는 마리 문서의 ‘우정’, 아마르나 문서의 ‘계약을 맺다’는 뜻을 확인하고 이 구절의 관용적 어법을 확인한 바 있다.¹²⁾ 그러므로 양측이 공식적인 합의문을 작성하는 절차로 이 표현을 읽는다면 ‘협상을 매듭짓다, 합의에 이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는 협정 내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상호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비공식적인 합의문이나 구두 승인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유대교의 해설 성서는 이 구절을 여호야긴의 신분 변화를 인정하는 법적 승인이라는 특수한 의미로 해설한다.¹³⁾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29절)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이다.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의복을 벗는 행위는 신분의 변화를 암시한다. 예언자 스가랴의 환상에 의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속죄의식을 치루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듣는다(슥 3:1-7). 본문에서 여호야긴의 환복(換復)은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이 되듯 여호야긴 역시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신토록”(all days of his life: 30절)

이 구절의 ‘his life’는 여호야긴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인지 헷갈린다. 일부 학자들은 본문 기록 당시 여호야긴이 이미 죽은 상태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예레미야에서는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섬세한 분석이 요청된다. 신명기사가에서 ‘종신토록’은 이미 죽은 인물에 대하여 언급한 것처럼 보인다(수 4:14; 삼상 7:15; 왕상 15:5, 6). 그러나 신명기사가의 묘사가 여호야긴의 죽음을 이미 내포한 것이라면 현재 협정의 혜택을 받을 양도자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본문의 시간적 흐름을 추적하여 여호야긴의 사면이 이루어졌던 시

11) Michael Fox, “Tôb as Covenant Terminology”,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9 (1973), 41-42.

12) Jon D. Levenson, “The Last Four Verses in King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3 (1984), 357.

13) Adele Berlin and Marc Zvi Brettler, eds., *Jewish Study Bib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779.

기를 살펴볼 차례다. 열왕기하 24-25장은 말라마트(Abraham Malamat)의 책 제목처럼¹⁴⁾ “유다 왕국의 해질녘”을 글자 그대로 반영한다.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이 약관의 18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어 바빌론으로 잡혀간다(왕하 24:15).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바빌론을 배반하자(왕하 24:20) 느부갓네살은 587년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시드기야마저 끌고 갔다(왕하 25:7). 그 후 바빌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582년 결국 ‘이스마엘’에게 살해됨으로써(왕하 25:25-26) 유다 왕국의 운명은 사라진다. 현재 본문은 561년 여호야긴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니 둘 사이에는 적어도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무려 37년 만에 일어난 것이다. 아래 타임 라인은 여호야긴의 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¹⁵⁾

<여호야긴의 타임 라인>

연도/기원전	유다/바빌론	비 고
616?	여호야긴 출생	
598.12.6-597.3.16	여호야긴의 유다 왕 재위	왕하 24:8
597.3.16	느부갓네살의 1차 예루살렘 침공 여호야긴/에스겔의 바빌론 후송	왕하 24:10-17 겔 1:1-2
597-587 594	시드기야 유다 통치와 바빌론 후송 반 바빌론 동맹 결성	왕하 24:18-25:7 렘 27장
588-587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과 예루살렘 파괴	왕하 25:1-21
587-582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와 죽음	왕하 25:23-25
560-561 560.3.27/25?	에월프로닥의 바빌론 왕 재위 여호야긴의 사면	왕하 25:27-30 (렘 52:31-34)

그렇다면 왜 에월프로닥은 여호야긴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다른 왕보다 높이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에월프로닥의 정보는 빈약한 자료와 짧은 통치 기간 때문에 많지 않으나 열왕기의 마지막 문단의 맥락에서 보면 프롤로프의 지적처럼 그가 마치 큰 인물처럼 보인다.¹⁶⁾ 즉

14) Abraham Malamat, *The Twilight of Judah: In the Egyptian-Babylonian Maelstrom*, VT Sup. 28 (Leiden: Brill, 1975).

15) Dan Bruce, “Solomon’s Temple Destroyed in 586 BCE”, *The Journal of the Prophecy Society of Atlanta* 2:2 (2012), 1-7 참조.

16) Serge Frolov, “Evil-Merodach and the Deuteronomist”, 181.

에월프로닥이 여호야긴을 ‘모든 왕의 지위보다’ 우대했기 때문에(28절) 유다 왕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왕조가 지원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신명기 사가적 관점에서 열왕기하 마지막 네 구절은 다윗 왕조의 핵심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계약에 대한 재확인, 또는 연속을 암시한다. 위에 제시한 ‘여호야긴의 타임 라인’으로 보면 그 다윗 계약의 희미한 불빛을 되살리려는 문학적 장치에 해당한다. 만약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이 돌아가 왕위에 다시 올랐다면 다윗 왕조의 종말론적 성취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명기사가는 구경의 결론 구절을 통하여 자신의 최종 메시지를 담아내는 신학적 버팀목으로 활용한 것이다.

3. 신명기사가의 눈에 비친 여호야긴과 에월프로닥

3.1. 에월프로닥

신명기사가에게 여호야긴의 석방과 사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이 네 구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인물, 에월프로닥과 여호야긴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에월프로닥(אֵוִיל־מֶרֶדַךְ: 기원전 562-560년)은 신바빌론의 세 번째 왕으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멸망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라는 치욕을 안겨준 느부갓네살이다. 구약성서는 에월프로닥(Evil-Merodach)이라고 기록하지만 아카드어로는 ‘아밀 마르дук’(Amil-Marduk), ‘아멜마르дук’(Amēl-Marduk), 또는 ‘아월마르дук’(Awil-Marduk) 등으로 모음의 변화가 다양하다. 어쨌거나 아카드어로 ‘아밀 마르дук’은 ‘마르дук의 아들’을, ‘아월마르дук’은 ‘마르дук의 숭배자’¹⁷⁾를 가리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이자 아들로서 자연스러운 이름이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에월프로닥’은 어떻게 된 것일까? 아카드어 발음을 히브리어로 약간 바꿔 읽으면 ‘멍청한 마르дук’이 되어 조롱과 경멸이 섞인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¹⁸⁾ 비록 그가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석방하고 왕으로 대우하며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는 적대국의 통치자며 유다 백성을 압제하는 학대자였다. 여호야긴의 사면으로 에월프로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

17)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21.

18) John Bright, 『예레미야』, 번역실 역,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475-476; *Jeremiah*, Anchor Bible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65).

졌으나 그렇다고 침략국의 왕에게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호칭에 변화를 주는 일종의 패러디는 유다 백성의 소극적인 반항과 상대를 부정하는 비아냥거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에월트로닥의 재위 기간이 약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보좌에 오르기 전의 기록도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 역사가 베로수스(Berosus)의 “바빌론 역사”(History of Babylonia)를 통하여 에월트로닥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일부만 전해지는 베로수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월트로닥은 불법적이며 변칙적으로 국정을 다스렸을 뿐 아니라 선대의 정책에 상반되는 개혁을 펼쳤기 때문에 지배계급이던 사제들의 분노를 샀다. 에월트로닥의 개혁은 집권 초기에 권력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고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급기야 매형이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네리글리사르(Neriglissar), 또는 네르갈사레셀(Nergalsarezer. 렘 39:3, 13)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에월트로닥은 살해되고 말았다.²⁰⁾ 그렇지만 그의 정책 가운데 신명기사가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다름 아닌 여호야긴의 석방과 사면이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온 이래 36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다. 그것은 피정복 국가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폭압적이며 무자비한 무력적 정치였다는 반증이다(왕하 24:10-17; 25:7). 에월트로닥은 정복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로 왕위에 오른 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즉위하던 해에 포로로 잡혀온 여러 왕들과 함께 여호야긴의 석방과 사면을 단행하였다. 그렇다고 에월트로닥의 개방정책이 단순히 유다와 피정복국가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얻고자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에월트로닥은 선왕과 차별적인 우호정책을 통해 안정과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우회적인 정책으로 여전히 제국의 통치적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다.²¹⁾ 기본적으로 제국

19) Ronald H. Sack, *Amēl-Marduk 562-560 B. C.: A Study Based on Cuneiform, Old Testament, Greek, Latin and Rabbinical Sources*,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04 (Kevelaer: Neukirchen-Vluyn, 1972), 29-31. 안티오쿠스 4세(기원전 175-163)가 ‘신의 현신’(Epiphanes)이라 자칭하며 팔레스틴을 폭력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의 글자 하나를 바꾸어 ‘미친 놈’이라는 뜻의 Epimanes로 불렀다. André Lacocque, *The Book of Daniel* (Eugene: Wipf & Stock, 2014), 74.

20) Ronald H. Sack, “Nergal-šarra-ušur, King of Babylon as seen in the Cuneiform, Greek, Latin and Hebrew Source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68:1 (1978), 129-149.

21) Jon D. Levenson, “The Last Four Verses in Kings”, 360.

호야긴'(יהויָאִיִּן))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명기사가에게 여호야긴은 어떤 인물이며 마지막 네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

여호야긴은 한 마디로 비극적인 유다의 왕이다. 재임 기간은 여호아하스(609년 재위)와 함께 오직 석 달 뿐이었고, 유다 왕 가운데 폐위된 세 임금(여호아하스, 시드기야)에 속한다. 그래서인지 여호야긴이 끌려간 기원전 597년 이후부터 사면된 560년까지 그의 관한 정보나 언급을 일언반구 찾아 보기 어렵다. 여호야긴이 다양한 이름으로 오르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왕위에 오르기 전후에 집중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신명기사는 여호야긴을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 않았던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왕하 24:9). 그렇다고 므낫세가 앗시리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잡혀간 뒤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였다는 언질도 찾을 수 없다.²⁵⁾ 그럼에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겔 1:2)처럼 여호야긴의 포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떠올리기 괴로운 치욕적인 기준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야긴을 유다 왕조사의 마지막에 위치시킨 신명기사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신명기사가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사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신명기사가의 눈길을 끈 것은 유다의 여호야긴과 바빌론의 에월므로닥의 만남이었다. 그달리아의 처형(582년) 이후 20여년 만에 들려온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560년)은 당시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듯 민감한 시점에 신명기사가는 두 인물을 등장시켜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투영하고 있다. 사실 두 왕의 공통점은 의외로 많다.²⁶⁾ 첫째, 실패한 왕이며 재위 기간이 짧다. 둘째, 그러나 둘 다 정통성을 가진 마지막 왕이다. 셋째, 두 왕은 강제 폐위 되었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특히 예레미야는 독자들의 혼란을 유발하려는 듯 여호야긴의 이름을 마치 전시장처럼 다양하게 사용하고, 아카드어 기록에서 에월므로닥의 표기 방식도 일관되지 않다. 이런 평가와 상황에서 여호야긴이 에월므로닥의 손에 의해 사면되었다는 소식은 ‘사로잡힌’ 왕의 석방이지만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마냥 기대와 희망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사가는 거의 저물어가는 다윗 왕가의 희미한 뿌리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근동을 호령하던 바빌론의 균열이 일어날 즈음 두 왕의 대

세 가지로 기록한다. 어쨌거나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의 이름을 변칙적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25) Christopher T. Begg, “The Significance of Jehoiachin's Release”, 51.

26) Serge Frolov, “Evil-Merodach and the Deuteronomist”, 181.

면에서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기원전 597년 이후 행방이 묘연하던 터에 여호야긴의 갑작스런 등장은 그동안 억측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뉴스였다. 따라서 신명기사가는 여호야긴의 사면 소식을 통하여 다윗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전기 예언서와 구경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삼은 것이다.²⁷⁾

4. 여호야긴 단화의 신학적 의의

노트의 이른 바 ‘신명기역사서’ 이론의 공헌을 들라면 다윗 왕조의 영구적 통치 개념이 신명기역사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다. 특히 열왕기하의 마지막 네 구절은 전기 예언서를 마무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신명기사가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다윗 왕조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다 최후의 임금 여호야긴의 운명을 다룬 이 단락에서 과연 다윗계약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자세히 나누자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① 다윗 왕가의 관에 최후 못질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입장(노트, 머레이),
- ② ‘다윗의 후손이 아직 잘 살아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견해(폰라트, 쟁어, 크로스),
- ③ 희망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회개의 요청으로 보는 입장(볼프),
- ④ 의도적으로 희망과 절망의 절묘한 균형을 갖게 하려는 견해(얀센).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기존의 해석을 재론하거나 보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역사의 마지막 단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기존의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본다. 즉 여호야긴 일화가 여전히 희망과 기대 섞인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4.1. 포로기의 문학 장르

27) Serge Frolov, “Evil-Merodach and the Deuteronomist”, 178. 이와 반대의 견해에 대해서는 Donald F. Murray, “Of All the Years the Hopes-Or Fears? Jehoiachin in Babylon (2 Kings 25:27-3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0:2 (2001), 245-265를 보라.

여호야긴 단화는 마인홀드(Arndt Meinhold)가 제안한 ‘디아스포라 소설’(Diaspora Novelle)의 원형, 또는 간단한 줄거리를 제공한다.²⁸⁾ 디아스포라 소설이란 고국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성공적인 삶을 그린 문학 장르를 가리킨다. 즉 포로, 또는 노예 신분의 유대인이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지만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적국의 고위 관리로 등용되는 줄거리다. 요셉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앞의 세 이야기처럼 줄거리를 제대로 갖춘 형식의 작품과 네 구절의 짧은 단화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다만 그 단화의 핵심 내용이 디아스포라 소설의 구성을 닮았다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고, 따라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열왕기하의 여호야긴 단화는 요셉 이야기(창 40-41)를 넌지시 암시하며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한다.²⁹⁾ 말하자면 요셉 이야기가 임박한 출애굽을 가리키듯 여호야긴 단화 역시 바빌론에서의 탈출, 곧 예루살렘 귀환을 암묵적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야곱 가문을 넘어 출애굽기에서 열왕기하까지 구경으로 확장시키는 “암시적 가교”(allusive bridge)로서 해석학적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윌슨(Ian Douglas Wilson)은 요셉, 여호야긴, 그리고 고레스가 책의 말미에서 어떻게 전승되는지 논의하며 ‘사회적 기억력’(social mnemonic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즉 이야기 전달 과정에서 공동체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¹⁾ 특히 침묵의 37년을 껴 여호야긴의 갑작스런 등장은 요셉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어떤 희망적 변화와 암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신명기사가는 여호야긴의 사면을 이스라엘 왕조사의 대단원에 위치하여 곧 펼쳐질 새로운 출애굽을 예시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돌아갈 희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 왕가의 최후 장면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복선(伏線)이다. 이

28) Arndt Meinhold, “Die Gattung der Josephsgeschichte und des Estherbuches: Diasporanovelle I und II”,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7:1 (1975), 72-93.

29) Michael J. Chan, “Joseph and Jehoiachin: On the Edge of Exodu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5:4 (2013), 566-577; Jan Jaynes Granowski, “Jehoiachin at the King’s Table: A Reading of the Ending of the Second Book of Kings”, Fewell, Danna Nolan, ed.,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73-190.

30) Michael J. Chan, “Joseph and Jehoiachin”, 574.

31) Ian Douglas Wilson, “Joseph, Jehoiachin, and Cyrus: On Book Endings, Exoduses and Exiles, and Yehudite/Judean Social Remembering”,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6:4 (2014), 521-534.

점에서 신명기사가가는 열왕기의 마지막 네 구절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의 결론을 희망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4.2. 정경적 서술 방식

신명기역사의 마지막 네 구절의 정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정경 서술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기라는 현실에서 신학적 성찰은 물론이러니와 편집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세기-열왕기가 구경으로 편집된 것이라면 그의도는 분명하다. 타나크(TaNaKh)의 24권은 훨씬 후대의 결과물이지만 구경의 형성 원칙과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주제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나크의 마지막 책은 역대하고 기원전 537년 내려진 고레스 칙령의 반포와 함께 끝난다. 그렇지만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 등을 다룬 이야기 등이 타나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대하 36:23 일부)라는 구절로 타나크의 최종 결론을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하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타나크의 마지막 구절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명령은 언제나 요청받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말라기의 종결 구문도 여호야긴 단화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독특한 독서방식 때문이다. 예언자의 선포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6 일부)로 끝난다. 이 구절은 유대교에서는 예언의 마지막이며, 개혁신교회의 측에서는 구약의 결론적인 말씀치고는 지나치게 부정적이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유대교는 말라기 4장 5절을 다시 읽음으로써 그 책의 낭독을 마친다.³²⁾ 이와 같은 유대교의 독서 전통으로 볼 때 여호야긴의 단화에서 긍정과 미래를 읽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열왕기하 25장 27-30절의 내용과 형식은 독립된, 혹은 완성된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없는 단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네 구절은 포로기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문학 소재였을 뿐 아니라 긍정적 독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사적 장치이자 종결방식이다.

32) Adele Berlin and Marc Zvi Brettler, eds., *Jewish Study Bible*, Malachai 3:23-24 (『개역개정』 4:5-6), 1274를 보라. 유대교는 같은 이유로 이사야,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를 마칠 때 마지막 바로 앞 구절을 다시 읽는다.

4.3. 히브리적 상상력으로 본 동사의 활용

여호야긴이 바빌론 왕궁에서 ‘유다의 왕’으로 회복되었으나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히브리 동사의 시제와 관련한 특이 사항은 완료(perfect)와 미완료(imperfect) 두 가지 형태로만 나뉜다는 사실이다.³³⁾ 여기서 완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에 관한 서술이라면 미완료는 아직 종료되지 않는 상태로서 여전히 진행된다는 뜻이다. 다시 여호야긴 단화로 돌아가면 그가 포로지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사면되어 왕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사실적인 묘사지만 히브리 동사의 시제로 보건대 유다의 왕으로서 그의 신분은 이제부터 전개될 미완료적 상황이다.

머레이(Donald F. Murray)의 구문론적 분석은 현재 논의에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열왕기하 25장의 주요 인물, 느부갓네살(1절), 느부사라단(8절), 이스마엘(25절), 에월므로닥(27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동사의 활용을 눈여겨본다. 즉 히브리 동사 완료(카탈)와 미완료(와익톨) 사이의 구문론적 대조를 통하여 마지막 단화의 여호야긴 사면에서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³⁴⁾ 머레이에 따르면 미완료적 묘사는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았다고 완료태로 서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28절에서 미완료 ‘와우’ 도치법으로 ‘말하다’(וַיִּדְבַּר)와 ‘높이다’(וַיִּשְׂבֵּר) 동사를 두 차례 활용한다. 앞에서 우리는 에월므로닥이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하다’는 뜻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뉘앙스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그 구절이 계약에 관련된다면 체결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미완료적 의미가 내포된다고 봐야한다. 한편 도치 완료는 현재와 과거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29절에서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וַיִּשְׂבֵּר)는 도치 완료형으로 과거를 기점으로 미완료적이며, 부사절 ‘날마다 종신토록’은 계속적인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다.³⁵⁾ 따라서 여호야긴 단화에 활용된 동사는 미완료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계약으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³⁶⁾

33) Thorlief Boman,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역 (웨관: 분도출판사, 1975);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34) Donald F. Murray, “Of All the Years the Hopes-Or Fears?”, 249-250. 여호야긴에 관한 그의 결론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하 25:27-30 분석은 탁월한 해석이다.

35) Galia Hatav,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997), 142-161.

열왕기하의 마지막 네 구절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 후 여호야긴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석방되고 왕의 신분을 회복한 것만 확인할 뿐이다(27절 완료태). 미완료적 뉘앙스로 서술한 신명기 사가의 문학적 장치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그렇듯 여호야긴의 행보가 미완적이며 미래적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안센(David Janzen)과 주(Samantha Joo)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³⁷⁾ 안센은 신명기사가가 여호야긴 단화에서 다윗 왕조의 미래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기술하여 무조건적인 다윗 계약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고 다윗 왕가의 운명을 명확하지 않게 서술한 것이라고 본다. 한편 주는 로힌튼 미스트리(Rohinton Mistry)의 소설 “A Fine Balance”를 신명기역사의 마지막 네 구절에 비교하며 여호야긴 단화가 포로의 절망과 귀환의 희망이라는 완벽한 균형론이 들어 있는 신학적 결과물이라고 제시한다. 두 학자의 견해는 포로기의 편집이나 귀환 이후의 작성 시기를 상정한다면 본문의 정경적 지위를 이해하지 못한 결론이며 신명기사가의 신학적 성찰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포로기라는 극단적인 절망 앞에서 막연한 희망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모호한 메시지로 회중들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열왕기하 25장 27-30절은 바빌론 유배로 인한 유다 왕국의 불연속과 왕조의 단절이라는 위기 앞에서 연결의 끈과 연속의 희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5. 단절의 불안과 연속의 희망

그렇다면 과연 여호야긴 단화는 구경 신학과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구경 전체로 볼 때 열왕기의 마지막 네 구절에서 구경 신학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화가 구경의 최종 편집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판단하건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지 추론할 수 있다. 따

36) W. Brueggemann, “The Kerygma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Interpretation* 22 (1968) 387-402.

37) David Janzen, “An Ambiguous Ending: Dynastic Punishment in Kings and the Fate of the Davidides in 2 Kings 25:27-30”,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1 (2008) 39-58; Samantha Joo, “A Fine Balance between Hope and Despair: The Epilogue to 2 Kings (25:27-30)”, *Biblical Interpretation* 20:3 (2012), 226-243.

라서 5장의 제목이 가리키듯 오경과 전기 예언서가 결합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구경 신학의 연속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5.1. 구경의 연속성

창세기 2:4-3:24의 창조설화는 구경의 서론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창조설화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다의 바빌론 포로기까지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³⁸⁾ 이들에게 창세기 2-3장의 범죄와 형벌은 므낫세의 범죄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 곧 바빌론 포로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사건이다. 그리하여 에덴동산 이야기가 여호야긴 단화까지 구경의 최종 편집과정에 주요한 영감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요셉 티투스(P. Joseph Titus)는 창세기 2-3장이 신명기역사서와 결합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면서 바빌론 유배, 즉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자 서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능성을 타진한다.³⁹⁾ 그는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에덴동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이 어떻게 구경의 구조와 신학에 연결되는가? 과연 에덴동산 이야기가 구경의 서론이라면 창세기 1장이 역사의 서두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 티투스에 의하면 포로기 이전에 창세기의 몇몇 자료들과 신명기역사의 열개가 따로 전승되었다가, 포로기에는 바빌론 유배를 조망할 수 있는 불순종과 형벌 구조의 이야기가 신명기역사와 결합되었으며(특히 창 2-3장과 왕하 17-25장 사이의 연결), 포로 귀환 이후에는 창세기 1장이 마지막으로 결합되는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다.⁴⁰⁾

슈미트(Konrad Schmidt)는 창세기-열왕기의 제사장 문서(P)를 검토하면서 P의 전통적인 역할을 확대 해석한다. 즉 오경 전체는 P의 작품이 아니라 기존에 전승되던 윤곽이 있었고, 나중에 P의 영향을 명백하게 받은 전기 예언서의 편집 텍스트가 최종 단계에서 결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오경과 신명기역사가 일정한 서사 구조를 갖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본다.⁴¹⁾ 특별히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블룸(Erhard Blum)의

38) Thomas Römer, "How Many Books?", 26.

39) P. Joseph Titus, *The Second Story of Creation (Gen 2:4-3:24): A Prologue to the Concept of Enneateuch?* (Frankfurt: P. Lang, 2011).

40) Joseph Titus, *The Second Story of Creation*, 455-457.

41) Konrad Schmidt, "The Emergence and Disappearance of the Separation Between the Pent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in Biblical Studies", *Pentateuch,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BL, 2011), 23-24.

해석은 흥미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그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음새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마지막 책에서 약속의 땅의 상실, 곧 예루살렘에서의 추방으로 마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블룸은 와이퍼트(Manfred Weippert)의 “이중 원인론”(double etiology)을 인용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경의 역사는 약속의 땅을 점유하였다가(여호수아까지), 나중에 상실한 과정(열왕기하까지)을 상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창세기에서 열왕기하까지 아홉 권은 일련의 작품으로 작성, 또는 편집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오경의 자료를 전기 예언서에서 가끔 확인하는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테면 블룸은 시내 산 단화(출 19:3b-8)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왕하 18:11-12)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구경의 연결고리를 입증한다. 이와 같이 오경의 단편들이 전기 예언서 곳곳에서 활용되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델(Sara Mendall)과 프리드만(David N. Freedman)이 일컫는 “Primary History”,⁴³⁾ 곧 창세기에서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에덴동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이며, 더 정확히 말해서 에덴동산 추방에서 예루살렘 추방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듯 장대한 서사적 구성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사면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다. 여호야긴의 등장이 마치 구경의 결말처럼 기록된 것은 어딘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종결이다. 더구나 시간적으로 여호야긴 단화는 그달리야의 죽음 이후 한참 뒤의 사건이다(표 <여호야긴 타임 라인> 참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제의 연결과 계속성은 지극히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즉 실낙원(Paradise lost)으로 인하여 최초의 두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나지만 그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떠난다(창 3:21). 에덴동산에서 축출된 후 아담과 하와는 경작의 수고를 피할 수 없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한편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희생과 함께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른 바 ‘예루살렘 추방’(Jerusalem deported), 곧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경험이었지만 여호야긴의 사면이 37년 만에 실현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창세기에서 열왕기하까지 서론부와 결론부의 신학적 일관성과 구조적 완성이 갖추진 셈이다.

42) Erhard Blum, “Pentateuch-Hexateuch-Enneateuch?”, 44, 49-50.

43) Sara Mandell, David Noel Freedman, *The Relationship between Herodotus' History and Primary History* (Tamp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ress, 1993), 89.

5.2. 불연속과 연속의 반전

열왕기하 25장 27-30절의 저자는 이 단화를 통하여 유다 국가의 멸망 가운데 어떻게 합법적인 왕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단화에서 바빌론의 에월므로닥과 유다의 여호야긴이 함께 등장한 것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둘의 정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월므로닥은 매형의 쿠데타로 왕조의 합법성을 잃게 되고, 유다의 최후 정국도 외세의 간섭으로 적통의 유지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국의 최후 20년을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요시야는 약관의 8세에 왕위에 올라 신명기사가 최고의 찬사를 받는다(왕하 20:1-2; 23:25). 그는 백성의 신뢰를 받으며 개혁운동을 펼쳐 유다의 중흥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요시야가 바로 느고(Pharaoh Neco)와 므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후(609년) 유다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과 위기를 맞게 된다. 즉 요시야(639-609년), 여호아하스(3개월), 여호야김(608-598년), 여호야긴(3개월), 시드기야(597-587년)까지 다섯 왕이 바뀌는 과정에 전사하거나(요시야), 폐위되고(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고문과(시드기야), 포로(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잡혀가는 등 불안이 가중되어 갔다.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살피던 유다 조정은 바빌론의 패권 장악 이후 두 차례의 예루살렘 침공과 포로(597년과 587년)로 인하여 유다 왕국과 백성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치욕적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파국에 직면한다.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간 후로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웠으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살되었다. 이렇듯 혼란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다윗 왕조의 불연속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간 것이다. 유다 왕조의 단절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되면서 절망은 극에 달하였다. 이처럼 그달리야가 죽은 지 22년, 여호야긴의 포로 37년이 지났으니, 유다 왕국의 부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좌절할 즈음에, 여호야긴의 사면이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저 멀리에서 들려온 것이다.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그의 “예레미야 주석”에서 “3 D”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바빌론 포로기의 특징을 ‘파괴’(Destruction), ‘유배’(Deportation), 그리고 ‘절망’(Despair)이라는 세 단어로 묘사한 바 있다.⁴⁴⁾ 이른 바 브루그만의 3 D는 다윗 왕조의 연속성을 가

44) Walter Brueggemann,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8), 494.

로막고 있는 세 겹의 거대한 벽에 해당한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이자 핵심을 무너뜨린 것이고, 유배는 왕과 사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으니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것이며, 절망은 그로 인한 사회적 좌절감과 심리적인 체념 및 포기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깊고 어두운 3D의 불연속과 단절의 역사에서 여호야긴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곧 유다 왕국의 연속과 다윗 왕가의 지속이다. 그렇다고 여호야긴의 석방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여호야긴이 사면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바빌론의 궁중에 있으며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암시조차 없으니 그동안 희미하던 다윗 왕조의 연속성이 더는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야긴 단화가 프라임 역사의 결론으로 구경을 마감하는 자리에 위치한 것은 단지 여호야긴의 신분 변화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암시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레벤슨의 주장처럼 유다 백성에게 최선의 희망은 그가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⁴⁵⁾ 하지만 현재의 본문에서 여호야긴의 사면과 석방 이상을 상상하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만 구경의 대단원을 마무리 짓는 자리에 여호야긴 단화가 배치됨으로써 다윗 왕조의 연속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확인하였고 유다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을 제시한 것만은 명백하다.⁴⁶⁾

6.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하 25장 27-30절 연구와 토론에 다각도로 참여해왔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희망”(폰라트), “패배자의 절망”(노트), “일종의 기록 보관자”(프롤로프), “유배에서 디아스포라로”(쉬퍼), “유배와 디아스포라의 기원”(뢰머)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⁴⁷⁾ 우리는 여호야긴 단화가 ‘메시아의 희망’을 함축한 것으로 간

45) Jon D. Levenson, “The Last Four Verses in Kings”, 360.

46) 여호야긴 이후 시드기야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다. 실제로 유다의 두 왕이 유배와 있는 셀인데 시드기야는 바빌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여호야긴에게 있다. Juha Pakkala, “Zedekiah's Fate and the Dynastic Success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5:3 (2006), 443-452.

47) Thomas Römer, “How Many Books”, 36-37. 특히 폰라트가 제안한 관점에서 볼 때 ‘야웨의 종’(사 53장) 연구나 메시아 해석에서 여호야긴과 그의 손자 스룹바벨은 거의 대부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Michael Goulder, “Behold my servant Jehoiachin”, *Vetus Testamentum* 52:2 (2002), 175-190을 참고하라.

주하고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입증하고자 했다.

즉 여호야긴과 에윌므로닥은 유약하고 짧게 통치하였지만 왕조의 적통성을 가진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둘의 상호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불모로 잡혀온 여호야긴의 사면은 최강국 바빌론의 지원을 받은 형국이니 당연히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프라임 역사, 구경의 결론부에 등장할 수 있었는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호야긴 단화는 디아스포라 소설의 원형 또는 짧은 형식이며 그 줄거리는 주인공이 성공하여 신분의 상승을 가져온다. 둘째, 유대교의 정경 서술 방식에 의하면 열린 종결과 긍정적 결말로 맺는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동사의 미완료적 의미와 활용이다. 이상의 제안을 통해 여호야긴 단화에서 유다 왕국의 연속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아홉 권의 책이 ‘프라임 역사’로 갈무리되는 과정에는 단절(discontinuity)의 불안과 연속(continuity)의 희망이라는 신학적 장치가 작동되었다. 여호야긴의 경우 그가 비록 실패한 왕이며 적국에 사로잡힌 무능한 통치자였으나 왕조의 회복과 국가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따라서 구경의 최후 장면에서 여호야긴을 위치시킴으로써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연속의 가능성을 보게 한 것이다. 이로써 아홉 권의 책은 세상 창조로부터 유다 왕국의 최후 장면을 이어주는 장대한 서사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 점에서 역대기역사가 그 범위를 아담으로부터 포로 이후까지 역사로 상정한 것과 자연스레 비교할 수 있지만 이 토론의 한계를 넘어간다. 창세기 2-3장이 바빌론 포로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라면, 그리고 창세기가 프라임 역사의 서문에 해당한다면, 여호야긴의 등장과 함께 구경을 마감하는 수사법은 서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래를 암시하는 “지능적인 종결”(intelligible end)이다.

<주제어> (Keywords)

여호야긴, 에윌므로닥, 신명기사가, 오경, 구경.

Jehoiachin, Ewilmerodach, Deuteronomistic, Primary History, Enneateuch.

(투고 일자: 201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영진, “신명기 역사가의 연대기에 나타난 문학적·신학적 특징”, 『서양고대사 연구』 25 (2009), 37-58.
- 노희원, “M. 노트와 확장된 신명기 역사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21 (1993), 257-305.
- 오택현, “신명기 역사의 역사 이해”, 『신학과 목회』 17 (2002), 27-42.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3 (2008), 67-86.
- 차준희, “예레미야서와 신명기 역사가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신학논단』 43 (2006), 249-73.
- Boman, Thorlief,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5; *Das hebrä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Bright, John, 『예레미야』, 번역실 역,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Jeremiah*, Anchor Bible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65.
- Person, Raymond F., 『신명기 학파: 역사, 사회적 배경, 문헌』, 최안나 역, 서울: 성서와함께, 2005; *The Deuteronomistic School: History, Social Setting and Literatur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Abela, Anthony, “Is Genesis the Introduction of the Primary History?”, A. Wénin ed.,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Literature, Redaction and History*,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397-406.
- Becking, Bob, “Jehojachin's Amnesty, Salvation for Israel? Notes on 2 Kings 25, 27-30”, *From David to Gedaliah: The Book of Kings as Story and History*, Fribourg: Academic Press, 2007, 174-190.
- Begg, Christopher T., “The Significance of Jehoiachin's Release: A New Propos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 (1986), 49-56.
- Berlin, Adele and Brettler, Marc Zvi, eds., *Jewish Study Bib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Blum, Erhard, “Pentateuch-Hexateuch-Enneateuch? Or: How Can One Recognize a Literary Work in the Hebrew Bible?”, Dozeman, Thomas B., Römer, Thomas, Konrad Schmid, eds., *Pentateuch,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43-71.
- Bruce, Dan, “Solomon's Temple Destroyed in 586 BCE”, *The Journal of the Prophecy Society of Atlanta* 2:2 (2012), 1-7.
- Brueggemann, Walter, “The Kerygma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Interpretation* 22 (1968), 387-402.

- Brueggemann, Walter,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 Chan, Michael J., “Joseph and Jehoiachin: On the Edge of Exodu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5:4 (2013), 566-577.
- Cross, Frank Moore,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Fox, Michael, “Tôb as Covenant Terminology”,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9 (1973), 41-42.
- Frolov, Serge, “Evil-Merodach and the Deuteronomist: The Sociohistorical Setting of Dtr in the Light of 2 Kgs 25, 27-30”, *Biblica* 88:2 (2007), 174-190.
- Goulder, Michael, “Behold My Servant Jehoiachin”, *Vetus Testamentum* 52:2 (2002), 175-190.
- Granowski, Jan Jaynes, “Jehoiachin at the King’s Table: A Reading of the Ending of the Second Book of Kings”, Fewell, Danna Nolan, *Reading Between Texts: Intertextuality and the Hebrew Bibl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73-190.
- Harvey, Joh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0:2 (2006), 237-258.
- Harvey, John, “Jehoiachin and Joseph: Hope at the Close of Deuteronomistic History”, Heskett, Randall, and Brian Irwin, eds., *The Bible as a Human Witness to Divine Revelation: Hearing the Word of God Through Historically Dissimilar Traditions*, New York; London: T&T Clack, 2010, 51-61.
- Hata, Galia, *The Semantics of Aspect and Modality: Evidence from English and Biblical Hebrew*,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997.
- Hölscher, Gustav, *Geschichtsschreibung in Israel: Untersuchungen zum Jahvisten und Elohisten*, vol. 50, Lund: CWK Gleerup, 1952.
- Janzen, David, “An Ambiguous Ending: Dynastic Punishment in Kings and the Fate of the Davidides in 2 Kings 25:27-30”,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3:1 (2008), 39-58.
- Janzen, David, “The Sins of Josiah and Hezekiah: A Synchronic Reading of the Final Chapters of King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7:3 (2013), 349-370.
- Joo, Samantha, “A Fine Balance between Hope and Despair: The Epilogue to 2 Kings (25:27-30)”, *Biblical Interpretation* 20:3 (2012), 226-243.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 the Old Testament*,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 Kratz, Reinhard G., *The Composition of the Narrat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London: T&T Clark, 2005.
- Lacocque, André, *The Book of Daniel*, Eugene: Wipf & Stock, 2014.
- Levenson, Jon D, “The Last Four Verses in King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3 (1984), 353-361.
- Malamat, Abraham, “The Twilight of Judah: In the Egyptian-Babylonian Maelstrom”, *Congress Volume VT Sup.* 28, Leiden: Brill, 1975, 123-145.
- Mandell, Sara and Freedman, David Noel, *The Relationship between Herodotus’ History and Primary History*, Tamp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ress, 1993.
- Marcus, David, “‘Lifting up the Head’: On the Trail of a Word Play in Genesis 40”, *Prooftexts* 10:1 (1990), 17-27.
- Meinhold, Arndt, “Die Gattung der Josephsgeschichte und des Estherbuches: Diasporanovelle I und II”,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7:1 (1975), 72-93.
- Murray, Donald F., “Of All the Years the Hopes-Or Fears? Jehoiachin in Babylon (2 Kings 25:27-30)”,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0:2 (2001), 245-265.
- Nolland, John, “Jechoniah and His Brothers (Matthew 1:11)”,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7 (1997), 160-178.
- Noth, Mart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1981.
- Pakkala, Juha, “Zedekiah's Fate and the Dynastic Success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5:3 (2006), 443-452.
- Person, Raymond F., “II Kings 24,18-25,30 and Jeremiah 52: A Text-Critical Case Study in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5:2 (1993), 174-205.
- Römer, Thomas C., “How Many Books (teuchs): Pentateuch, Hexateuch, Deuteronomistic History, or Enneateuch?”, Dozeman, Thomas B., Konrad Schmid, and Thomas Römer, eds., *Pentateuch, Hexateuch, or Enneateuch: Identifying Literary Works in Genesis through King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25-42.
- Sack, Ronald H., *Amēl-Marduk 562-560 B.C.: A Study Based on Cuneiform, Old Testament, Greek, Latin and Rabbinical Sources*,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04, Kevelaer: Neukirchen-Vluyn, 1972.
- Sack, Ronald H., “Nergal-šarra-ušur, King of Babylon as seen in the Cuneiform, Greek, Latin and Hebrew Source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68:1 (1978), 129-149.

- Sensenig, Melvin L., “Jehoiachin and His Oracle: The Shaphanide Literary Framework for the End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h. 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2013.
- Speiser, Ephraim A., *Genesi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5.
- Stackert, Jeffrey, “Before and After Scripture: Narrative Chronology in the Revision of Torah Texts”, *Journal of Ancient Judaism*, 4:2 (2013), 168-185.
- Tadmor, Hayim, “Chronology of the Last Kings of Judah”,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5:4 (1956), 226-230.
- Titus, P. Joseph, *The Second Story of Creation (Gen 2:4-3:24): A Prologue to the Concept of Enneateuch?*, Frankfurt: P. Lang, 2011.
- von Rad, Gerhar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1966.
- Wilson, Ian Douglas, “Joseph, Jehoiachin, and Cyrus: On Book Endings, Exoduses and Exiles, and Yehudite/Judean Social Remembering”,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6:4 (2014), 521-534.

<Abstract>

**Crisis of Discontinuity vs Hope of Continuity:
Canonical Position of 2 Kings 25:27-30**

Chang Joo Kim
(Hanshin University)

This essay attempts to explore theological significance in the final verses of 2 Kings. The Jehoiachin's episode is mentioned just like an epilogue in the last stage at the compositive edition of Enneateuch (Genesis through Kings). It is, first of all, necessary that 2 Kings 25:27-30 should be analyzed historically and exegetically. I suggest that the final 4 verses imply canonical position of the present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through Jehoiachin's release.

The appearance of Jehoiachin and Evil-merodach in this episode shares a couple of common points with each other. Both of them, as a legitimate line of decent, ruled their own country shortly, but were estimated as a failure. For the Deuteronomic historian, Jehoiachin was indee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2 Kings 24:9). If so, how did he come to the conclusive part of the Primary History? The fact that Jehoiachin was restored by Evil-merodach of the Babylonian Emperor implies a positive messag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Jehoiachin's episode, as a model for Diaspora Novelle, reflected an open ending or positive closing of the Judaic way of canonical editing even in a hopeless time. Second, I try to propose that the use of an imperfect verb in the short paragraph can reach a climax in the whole chapter 25. From then on, Jehoiachin as a Davidic line will be restored and reign the Judah community.

Meanwhile when Enneateuch draws a conclusion as the Primary History, the Deuteronomist devised theological and rhetorical device, which is namely a dialect between discontinuity and continuity of the Kingdom of Judah. For Jehoiachin, though being a loser and a captive in Babylon, he could become a clue of a positive sign in the critical moment of Judah. Accordingly, by positioning Jehoiachin in the final step of Enneateuch, Deuteronomist could read into the possible continuity of Israel/Judah. Thus, Enneateuch could form a narrational structure of a long history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last

scene of Judah. If Genesis 2-3 reflects the Babylon exile of Israel, and the Book of Genesis is a prologue of the Primary History, the technique that closes the Enneateuch with the appearance of Jehoiachin is applicable to “an intelligible end”, that keeps not only theological consistence but also optimistic expectation from him.